



1만원으로 즐기는 행복

-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



공연예술학 박사 주장석
인제군문화재단 이사





목 차

1. 나의 취미는 () 다.
2. 미치다! 미치다! 미치다!
3. 인간이 느끼는 행복?
4.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몰입
5. 문화예술은 공공재인가. 소비재인가?
6. 프랑스로 부터 배우는 예술문화자치
7. 지자체의 문화활성화 도모 사례
8. 예술이 좋아 만든 커뮤니티
9. 1만원으로 행복하기(공연예술 집단 탐방)
10. 관객개발 성공사례
11. 공연예술로 지역 성장을 이끈 사례
12. 지자체 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나의 취미는 ()다.



취미가 세상을 바꿨다!

- ✓ **스트레스 해소 & 정신 건강**
 -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함
 - 엔도르핀·도파민 분비로 우울증·불안 완화
- ✓ **창의력 & 학습 능력 향상**
 - 새로운 기술 습득, 창의적 사고 촉진
 - 성취감과 만족감 제공
- ✓ **신체 건강 증진**
 - 운동 취미 → 체력 강화, 심혈관 건강 개선
 - 손·몸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균형 잡힌 라이프스타일 유지
- ✓ **사회적 연결 강화**
 -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유대감 형성
 -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 ✓ **자아실현 & 행복감**
 - 자신만의 시간 확보, 성취감 증대
 - 일과 삶의 균형 유지
- ✓ **장기적 건강 관리**
 - 두뇌 자극으로 인지 기능 유지 (퍼즐, 체스 등)
 - 취미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경향 있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에 미쳐 본적이 있는가?



1. ‘미치다’의 어원과 주요 의미

(1) 도달하다, 이르다 (reaching, arriving) : 목표나 특정 지점에 다다름을 의미.

"우리 팀의 기세가 결승전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태나 기세가 영향을 줌)

(2) 영향을 주다 (influence, affect) :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이 정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 정신이 이상해지다, 미쳐버리다 (going crazy, insane) : 부정적인 의미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미쳤어? 그런 위험한 짓을 하다니!" (부정적 강조)

(4) 어떤 특정한 행동에 몰입하다, 열중하다 (being absorbed, enthusiastic) :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

"요즘 그는 게임에 완전히 미쳐 있다." (어떤 대상에 강한 열정을 보임)

"그는 10년 동안 무용에 미쳐 있었다." (어떤 활동에 전념함)

"새로운 취미에 미쳐서 밤낮없이 연습했다." (집중함)



**인간이
느끼는 행복?**

-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태이며,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 심리학적 접근 : 긍정적 감정(joy) +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 저명인사들의 ' 행복 ' 의 정의
 -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 행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
 -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 행복은 목적과 행동 속에서 발견된다.
 - 헬렌 켈러 (미국 작가, 사회운동가) : 행복은 감사와 만족에서 시작된다.
 - 노자: 스스로 만족하고 그칠 줄 알면 행복하다.
 - 공자: 물은 활동적이고 산은 고요하듯, 지혜는 즐거움을, 인은 평안을 준다.
 - 맹자: 역경은 마음을 단련하고 능력을 키워 행복을 준비하게 한다.

- ① **관계**에서 오는 행복 → 가족·친구·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Harvard 연구(2023))
 -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
 - 친구, 연인과의 친밀한 대화와 교류가 정서적 안정 제공
 - 사례: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친구들과 여행 가기, 연인의 애정 표현
- ② **성취**에서 오는 행복 : 목표 달성, 자기계발, 직업 만족
 - Martin Seligman: 목표 달성 시 도파민 분비 → 행복 증가
 - Mihaly Csikszentmihalyi: 몰입(flow) 상태가 최고의 만족 제공
 - 사례: 시험 합격, 프로젝트 성공, 새로운 기술 습득
- ③ **경험**에서 오는 행복 : 여행·문화·예술 활동
 - Leaf Van Boven 연구: 물질 소비보다 경험 소비가 더 지속적인 행복 제공
 - 예술 감상, 공연·전시 관람이 감성적 안정에 도움
 - 사례: 해외여행, **뮤지컬 관람, 콘서트 참여**


- ④ **신체적 만족**에서 오는 행복 → **운동·음식·자연과의 교감** (John Ratey 연구)
 - 운동이 엔도르핀을 분비해 행복감 증진.
 - 음식 섭취 시 세로토닌 증가→기분 개선
 - 사례 : 조깅 후 개운함, 맛있는 음식 먹을 때의 기쁨, 등산 후 상쾌함

- ⑤ **나눔과 선행**에서 오는 행복 → 타인을 돕는 행동, 감사 표현 (Harvard 연구(2008))
 - 타인을 위한 소비가 더 큰 행복 제공
 - 감사 일기 작성이 긍정적 정서 상승에 기여
 - 사례: 기부·봉사활동, 감사 편지 쓰기, 타인의 도움 받았을 때 감동

- ✓ 좋은 인간관계 유지
- ✓ 목표 설정과 성취
- ✓ 새로운 경험과 배움
- ✓ 건강한 생활 습관
- ✓ 나눔과 감사 실천

따라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 **긍정적인 습관과 행동이 행복을 결정한다.**

A photograph of a river flowing through a lush green forest. The river is surrounded by large, moss-covered rocks. The water is clear and reflects the surrounding greenery. The scene is peaceful and natural.

사람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몰입(flow)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Flow)' 이론의 창시자로 유명한 헝가리계 미국인 심리학자
 1934년 9월 29일 이탈리아 피우메(현재의 크로아티아 리예카)에서 태어나, 22세에 미국으로 이민
 시카고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클레어몬트대 학원대학교의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 교
 수 및 '삶의 질 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하며 인간의 창의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
 그의 대표 저서로는 『몰입의 즐거움』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음
 2021년 10월 20일,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

1장: 몰입이론 (Flow Theory)

- 정의: 몰입(Flow)은 개인이 **특정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며 시간과 주변을 잊고 최상의 성과를 내는 상태**
- 핵심 개념
 - 도전과 기술의 균형: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가 개인의 기술 수준과 맞아야 함
 - 명확한 목표: 목표와 피드백이 분명할 때 몰입이 쉽게 유발됨
 - 즉각적인 피드백: 자신의 행동이 즉시 결과로 반영될 때 지속적인 동기 부여
 - 자기 통제감: 자신이 상황을 주도한다고 느낄 때 몰입 가능성 증가
 - 시간 감각 상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면 시간의 흐름을 잊음
- 몰입의 8가지 상태
 - 몰입 (Flow), 걱정 (Worry), 불안 (Anxiety), 각성 (Arousal), 통제 (Control), 이완 (Relaxation), 무관심(Apathy), 지루함(Boredom)
- 활용 분야: 스포츠, 예술, 연극, 교육, 비즈니스 등

1장: 몰입이론 (Flow Theory)

- 정의: 몰입(Flow)은 개인이 **특정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며 시간과 주변을 잊고 최상의 성과를 내는 상태**
- 핵심 개념
 - 도전과 기술의 균형: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가 개인의 기술 수준과 맞아야 함
 - 명확한 목표: 목표와 피드백이 분명할 때 몰입이 쉽게 유발됨
 - 즉각적인 피드백: 자신의 행동이 즉시 결과로 반영될 때 지속적인 동기 부여
 - 자기 통제감: 자신이 상황을 주도한다고 느낄 때 몰입 가능성 증가
 - 시간 감각 상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면 시간의 흐름을 잊음
- 몰입의 8가지 상태
 - 몰입 (Flow), 걱정 (Worry), 불안 (Anxiety), 각성 (Arousal), 통제 (Control), 이완 (Relaxation), 무관심(Apathy), 지루함(Boredom)
- 활용 분야: 스포츠, 예술, 연극, 교육, 비즈니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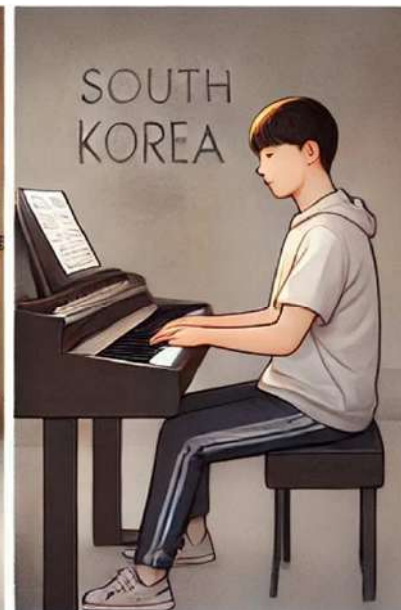
예술이 밥 먹여주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문화예술은 공공재인가? 소비재인가



더 나은 문화/여가 생활 부족(25.4%)

2019년 전남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더 나은 일자리(46.5%)’와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부족(25.4%)’이 1·2위로 꼽혔지만 문화격차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호남타임즈(<http://www.honamtimes.com>), 정진영 기자, 2022.10.07

HOME > 뉴스 > 정치

이개호 국회의원, 문화격차 해소 ‘총체적 부실’

☞ 정진영 기자 | ☞ 승인 2022.10.07 17:36

문화시설 ‘수도권 90% 집중’...접근성, 예술활동 격차 등 오히려 심화
문화예술분야 지방소멸방지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



이개호 국회의원.

문화시설 ‘수도권 90% 집중’...접근성, 예술 활동 격차 등 오히려 심화
문화예술분야 지방소멸방지대책 전면 재검 토 필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 기 위해서는 문화격차해소가 시급하다는 국 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해소 노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투자 또한 지 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거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예술분야는 국토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문화격차를 심화시켜 지방소멸문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화격차

예술활동의 가치(1)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5. 18.

1. 심리적 측면

- 몰입, 매혹, 자극
 - 예술 경험은 몰입을 유도하며, 감각적 자극을 통해 예술 참여 수준을 높임
- 공명, 공감
 - 예술을 통해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변화를 촉진
- 학습, 도전
 -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학습하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
- 건강, 웰빙
 - 스트레스 완화, 정신적 안정감 증진, 신체·정신 건강 향상
- 미적 성장, 발전, 자극
 - 창의적 자극을 통해 미적 감각을 확장하고 삶의 질 향상

예술활동의 가치(2)

2. 사회적 측면

- 사회적 유대감, 연결, 판단
→ 예술활동이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학교교육, 학업성취도
→ 청소년의 학업 능력 향상 및 자신감 증대
- 사회적 포용, 시민의식, 결속력
→ 예술교육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
- 지역 이미지, 정체성
→ 지역 소속감 형성과 장소성 강화

3. 경제적 측면

- 지역경제 활성화
→ 예술산업이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문화산업 및 고용 효과
→ 예술 콘텐츠가 생산유발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짐
- 사회적 비용 절감
→ 예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로 정부 재정 부담 감소

좋은 공연을 감상했을때 감동이란!

1. 몰입감과 감동

- 스토리, 연기, 음악, 무대미술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
- 현실을 잊고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
-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

2. 공감과 연결감

- 작품 속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
-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으로 감정적 교감 형성
- 따뜻한 인간적 연결감 경험

3. 카타르시스

-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며 마음이 정화됨
- 비극적인 장면을 보며 슬퍼하지만, 공연 후 마음이 가벼워짐

4.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

- 공연을 통해 사회적·철학적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획득
-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사유로 이어짐

좋은 공연을 감상했을때 감동이란!

5. 시각적,청각적 황홀감

- 무대 디자인, 조명, 음악, 의상, 안무 등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
- "눈이 행복하다", "귀가 즐겁다"는 감각적 만족

6. 공연장의 특별한 에너지

- 배우와 관객 사이의 교감과 현장감
- 관객이 하나 되어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

7. 자극과 영감

- 공연이 창의적 자극과 동기부여 제공
-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결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예체능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예체능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야 하는 이유!!!!

1. 인지 발달과 창의성 향상

- 예체능 활동은 뇌 발달을 촉진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함
- 음악·미술·체육 교육이 학습 능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킴

2.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

- 감정 표현 및 조절 능력 향상 →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 팀 활동을 통한 협동심, 공감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강화

3. 신체 건강 및 학업 성취도 향상

- 체육 활동이 비만 예방, 심폐 기능 강화, 집중력 향상에 기여
- 예체능 교육이 학업 성취도와 기억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

4. 다양한 진로 기회 제공

- 문화예술·스포츠 산업 성장 → 관련 직업군 확대
-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수요 증가

5. 전인적 성장과 균형 잡힌 교육

- 인지, 정서, 신체, 사회적 발달을 균형 있게 촉진
- 학문적 성공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 공공재(Public Good)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을 가지는 재화를 의미.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 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하며, 누구나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다. ⇒ **문화적 공유 가치**
- 공공 미술, 거리 공연, 공원 조각상 등은 특정 개인만이 독점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 ⇒ **비 배제성**
- 하나의 예술작품(예: 영화, 연극, 음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제공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감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감상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 ⇒ **비 경합성**
- **시장 논리에 의해 접근이 제한될 경우, 예술의 공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술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필요**

- 문화예술은 국민 삶의 질을 고양시켜주는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형평성에 의거한 **복지개념의 중요한 요소**
- 문화예술은 **창조성을 생명으로** 하고, 그것은 국가 사회경제 발전의 기본인 **창조적 정신의 원천**
- 예술가가 창작물을 생산할 때까지의 숙련을 위한 사전 시간과 비용이 높아 생산성이 낮음.
- 문화예술은 낮은 가격 탄력성, 노동집약성, 높은 생산비용 등에 따른 낮은 경쟁력과 경제적 희생을 통해 창작됨.
- **문화예술은 결국 공공적 개념으로 인정, 지원됨으로써 본연의 건강성과 의미를 지속할 수 있다.**(심은섭 가톨릭관동대 교수)

- **소비재(Consumer Goods)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개인이 소비를 결정하는 상품을 의미. 이는 희소성이 있으며, 구매력에 따라 소비 여부가 결정됨.
- **소비재로서의 예술** : 연극 뮤지컬 등 유료공연과 미술시장
- **예술의 희소성** : 유명작가의 그림, 한정판 음반, 오리지널 공연
- **배재성과 경합성** : 티켓구매 등 소비자가 선택, 특정작품의 개인소장 및 예술품 거래
- **시장원리의 적용** : 영화, 음악, 공연, 미술품 등은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운영되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됨.
- **예술을 소비재로 본다면, 시장 경제 속에서 예술이 수익성과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

왜 예술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오랜 세월 우리의 예술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켰다. **문학은 고급 공무원을 뽑는 기준**이었고, 군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삶에서 **시와 소리와 그림은 대단히 중요** 부분이었다. 일반백성들의 **고단한 삶속에도 노래와 춤과 놀이가 깊숙이** 자리했다.
- 예술은 **잘 짜인 예술가 양성체계와 상시로 예술을 즐기는 전 국민적 토양**위에 꽃을 피운다.
- **예술이 없는 문화란** 도저히 **그 품격을 장담할 수 없고**, 그렇게 품격을 잃은 문화는 **국가와 민족과 사회의 허약함**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다시 예술의 존재를 위협한다.
 - **현대의 바쁜 사람들에게 여가를 즐기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느끼도록 이끌어야 한다.**
 - **문화적 취미를 즐기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그 모든 것을 **언제든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게 늘 가까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순천향대 오세곤 교수)

- 예술은 공공재와 소비재의 특성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개념
 - **예술은 완전한 공공재도, 완전한 소비재도 아니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공존하는 "혼합재(Mixed Good)"**
 - 공공재적 요소가 강한 예술(전통예술, 공공미술, 무료 공연 등)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
 - 소비재적 요소가 강한 예술(뮤지컬, 영화, 대형 전시, 상업적 공연 등)은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지만,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 즉, 예술이 시장의 자율성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도, **문화적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지원과 시장 경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이 필요.**



프랑스로부터 배우는 문화예술자치



1959년 프랑스 '문화부' 출범과 '문화민주화'

-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문화부 장관이 됨. 이때 프랑스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문화적 정책을 갖게 됨(샤를드골 정권)
- 인류의 주요 작품,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작품을 가능한 한 많은 프랑스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자산에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것, **문화의집**
- 고급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예술문화만을 예술의 영역으로 포함해 문화자산을 보전·전수하고자 했으며, 전문예술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
- 문화민주화는 소수 엘리트 계층만이 향유하던 고급예술문화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1971년 프랑스 정부는 문화민주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며 **'문화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
- 고급문화 중심의 일방적인 공급이 아닌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문화 민주주의' 개념이 등장함
- 예술문화 작품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접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예술문화 향유를 위한 하나의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지**됨
- 사회적 형평성을 먼저 고려하여 **대중의 예술참여와 경험을 중요시 하는 관객 지향적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

- 1981년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자크 랑(Jack Lang)은 문화 민주주의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여 예술문화의 영역을 오페라, 발레, 연극, 미술품, 클래식 음악 등 고급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 가요, 재즈, 록, 만화, 요리, 서커스, 거리예술, 의상, 산업디자인으로의 확대는 물론 아마추어 예술 활동과 실험예술 지원 등 소외된 계층부터 지방 문화까지 모두 예술 영역에 포함해 그 활동을 지원함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



1. 강원도 최초의 문화재단 설립

- 강원도 최초의 민간 문화재단(1998년 설립). 2016년 강릉문화재단으로 확대 개편,

2. 재일동포의 현물 출자로 설립

- 재일동포 故 박준용 씨, 강릉과 평창 일대 10억 원 상당 토지 기탁(1996년).
- 1998년, 아들 박평조 선생이 현금 10억 원 추가 기부, 문화재단 설립 기반 마련.
- 1998년 11월 3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초대 이사장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 취임.
- 2005년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변경, 강릉문화재단으로 발전.

3. 강릉커피축제의 탄생과 박이추 선생의 역할

- 박이추 선생(일본 규슈 출신, 한국 1세대 로스터), 1980년대 강릉에 정착. 직접 원두 로스팅, 핸드드립 커피 보급 → 강릉이 한국 커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 강릉 커피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강릉 커피산업의 초석을 다짐.

4. 산토리니 및 테라로사 커피와 커피거리 조성

- 김용덕(테라로사 대표, 한국 1세대 커피 전문가) 등의 개척자로 커피산업 성장.
- 강릉 안목해변을 중심으로 개성 있는 로스터리 형성 → '강릉커피거리' 탄생.
-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9년 강릉커피축제 탄생, 이후 전국적 행사로 성장.

5. 브랜드화 및 관광 활성화

- 바리스타 경연대회, 커피 로스팅 체험, 커피 아트 전시 등 문화 관광 요소 강화.
- 커피축제가 단순한 시음 행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이 융합된 대표 축제로 발전.
- 강릉커피축제는 강릉을 '커피도시'로 브랜드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성공.
- 현재 강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도시이자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음.

김문원 의정부시장 (제11, 13대 국회의원, 제28, 29대 의정부시장)

2007년 의정부시 인구 416,844명 (2007년 5월 기준)



김문원시장의 문화예술분야 정책 추진 사례

1. 경기북부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출범

-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맞춤형 공연·전시 제공으로 생활 속 문화예술 확충

2.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 노인 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활동 지원

3. 예술시장 활성화 및 융합 확대

- 유통 플랫폼 및 융합 지원 플랫폼 강화, 기초예술과 타 산업의 융합 추진

4. 예술가 복지 지원 강화

- 예술가복지센터 설립, 건강보험 지원사업 시행

5. 정책 평가

- 의정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문화예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예술이 좋아 만든 커뮤니티





인천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1. 창립 배경: 2005년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에서 문화수용자 운동
2. 목적: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 및 공연 유치 활성화
3. 특징: 월 회비 1만원 회원 모집 → 연간 공연 5회 무료 관람, 4~5개월 만에 회원 400명 돌파 → 시민 주도의 예술 소비 촉진
4. 창립 2년만에 회원수 1200명, 상근직원 10명으로 성장
5. 주요 활동: 2006년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콘서트' 1600명 관객 유치,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회 공연 성공
6. 2009년부터 생활예술동아리 확대 → 기타, 합창, 밴드, 연극 등 활성화
7. 2006년 '부평 복합문화공간 아트홀 소풍' 개관(문화공간 조성사업)
8. 2008년 '부평놀이터' 설립 → 동아리 연습 공간 제공
9. 2011년 4층 건물 통임대하여 종합 문화공간 운영 (2013년 공간 포기)
10. 현재: 인천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속, 지역 문화정책 자문 역할 수행



2009년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소속
기타동아리 '기타마루'의
회원들의 연습

2011년 9월 2일
열린 문화바람 개소식에서
여성 기타동아리 '토마토'
사전 공연



1. 생활예술공동체의 역할과 문화매개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집단

2. 인천의 생활예술공동체 ‘문화바람’의 특징

- 생활예술공동체: 취미 예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 자발적 결사체
- 인천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사례
- 2013년 강윤주·심보선 연구 대상으로 함
- 아마추어 예술가, 예술애호가 중심으로 구성
- 생계를 위한 예술이 아닌 생활 속 예술 추구

3. ‘문화바람’의 주요 성격

- 1) 강한 내부 결속력 – 상근자들 간 신뢰 및 동지적 관계 형성, 회원들도 공동체의 지속성을 믿고 적극 참여
- 2) **예술보다 “관계” 중심** ⇒ 예술이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할 수행, 정서적 심리적 유대감 형성
- 3) 대표의 보이지 않는 리더십 ⇒ 자발적 참여와 신뢰 기반 운영
- 4) 내부 결속력과 외부 연계 균형 ⇒ 높은 내부결속력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적 성격 유지

내 주변 가까이 좋은 공연이 많이 있다!

지역 유명
공연예술단체
소개



1만원으로 행복하기!



1만원으로 영화 1편 공연 1작품 관람하기 어렵다

- 영화1편 관람료 14,000원 ~ 20,000원대
- OTT 영화1편 관람료 10,000원
- 뮤지컬 1편 관람료(S석 기준) 100,000원 선
- 뮤지컬 <명성황후> 30주년 기념 공연 (S석 기준) 110,000원
- 뮤지컬 지킬&하이드 - 20주년 56,000원 ~ 170,000원
- 2025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22,000 ~ 88,000원
- 대학로 연극 40,000원 ~ 80,000원 대 (할인적용 1만원 ~2만원)

2) 중소도시 공연 관람료 20,000원 ~ 40,000원

각종 할인을 이용하면 1만원대에 관람 가능

- 문화누리카드 50% 할인
- 지역주민 할인(50%)
- 매니아층 (20% ~ 50%)
- 예술인 카드 소지자(50%)
- 조기예매(30%) 할인
- 65세 할인(50%)
- 국가유공자, 장애인할인(50%) – 본인 및 배우자

이외 5,000원 또는 무료공연도 상당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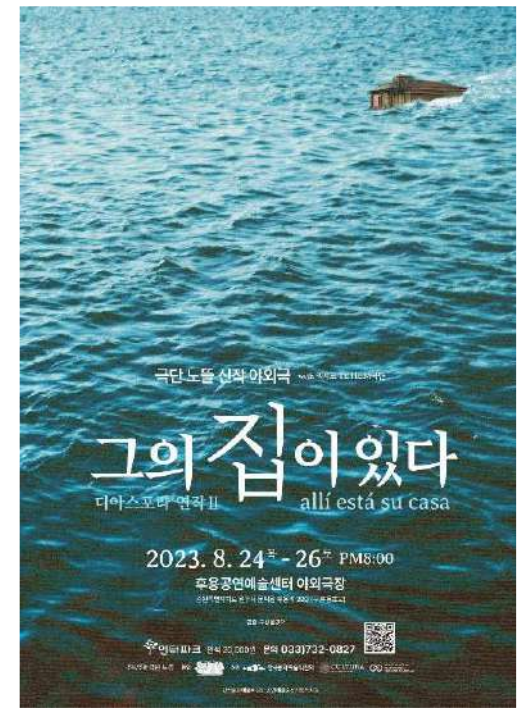
지역기반 집단연극 단체 소개(국내)

기남씨의 1만원으로 행복하기





1. 극단 노뜰과 후용공연예술센터



원주, 극단 노뜰과 후용공연예술센터

1. 극단 노뜰은 1993년 원주에서 창단, '노동하듯 연극하자!'는 의미
2. 초기 대학생 중심으로 마당극과 민족극을 공연하며 창작극 제작에 집중
3. 2000년 폐교된 후용초등학교를 임차해 후용공연예술센터를 설립
4. 2001년부터 아비뇽, 베이징, 토가 페스티벌 등 해외 무대에서 활동
5. 2010년 이후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과 협업하며 국제창작 네트워크를 구축 아시아, 남미, 2024년 페루까지 영역확장
6. 장소 특정적 연극을 실천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실험적 공연을 선보임
7. 집단연극 방식을 도입해 학술적 탐구, 토론, 창작, 쇼케이스 공연을 거쳐 작품을 완성
8. 후용공연예술센터를 기반으로 후용공연예술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중
9. 현재 9명이 집단 거주와 집단창작활동을 진행중

극단 노들의 연극사적 성과

1. **집단연극 방식 도입** : 창작과 거주가 결합된 새로운 연극 제작 시스템 구축
2. **후용공연예술센터 설립(2000년)**
 - 독자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실험적 연극 발전
3. 세계 연극제 초청 (2001년~) : 아비뇽, 베이징, 토가 페스티벌 등 국제 무대 진출
4. 지속적인 창작극 발표 : '햄릿', '귀환', '전쟁 연작 시리즈', '디아스포라 연작 시리즈' 등 독창적 작품 제작
5. **한국 연극 해외 진출 개척** : 국내 최초로 호주 애들레이드 아트마켓 참가
6. 국제 연극 교류 활성화 : 후용공연예술센터에서 국제 워크숍 및 레지던시 운영
7. 지역 기반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 장소 특정적 연극과 공동체적 연극 실천
8. 원주라는 소도시를 기반으로 세계로 진출한 선도적 극단

극단 노들의 경영성과

1. 공연 횟수 : 30년 동안 한 해 평균 4.5개 작품을 제작하여 총 210회 공연
2. 해외 공연 : 17개국 31개 도시에서 49회 공연 및 워크숍 진행
3. 해외 공동 제작 및 협업 :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20회 이상의 해외 극단과 공동 제작 공연 진행 / 1달 이상 협력제작
4. 대표 레퍼토리 공연 성과
 - 대표작<동방의 햄릿>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총 20회 공연
 - 대표작<귀환>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총 24회 공연
5. 세계주요 연극제 초청 : 프랑스 아비뇽 프린지 페스티벌, 중국 베이징 페스티벌, 일본 토가 페스티벌 등 . 세계 주요 연극제 초청 참가
6. 국내 최초로 호주 애들레이드 아트마켓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

공연 후 관객과 함께 간단한 케이터링과 치약산 막걸리를 마시며 피드백 시간을 갖음



2. 만종리 대학로극장과 주경야연(晝耕夜演)



극단 대학로극장, 대학로의 전성기를 이끈다!

- 대학로 극장은 **1987년 6월 서울 연건동 이화사거리**에 개관.
- 개관 이후 <돈 내지 맙시다>, <관객 모독>, <불 좀 꺼 주세요> 등의 작품을 성공적으로 공연하며 소극장 문화 형성에 기여.
- 연극 <**불 좀 꺼 주세요**> (이만희 작, 강영걸 연출) : 이도경, 최정우, 기주봉, 정재진, 박정자, 손숙, 이호재 등 출연
- 1992년 대학로 극장에서 초연된 연극으로, **3년 6개월간 1,157회 공연, 총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최장기·최다 공연 기록을 세운 작품.
- 과거에 사랑했던 남녀가 각자 결혼 후 다시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다룸.
- 2000년 '다시 보고 싶은 연극 1위' 선정. : 외설 논란, 여배우 신체 노출 이슈 등으로 화제를 모으며 대학로 극장의 전성기를 이끌었음.
-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 타임캡슐에 소장된 연극 중 하나로 역사적 의미가 있음

숲속무대
만종리 밀밭극장

MBC 충북 다큐멘터리

숲속무대 만종리 밀밭극장



극단 대학로극장, 단양 만종리로 이주하다!

1. 임대료 상승: 2000년대 이후 대기업·대학의 공연장 부지 매입으로 **임대료 급등**(2015년 440만 원).
2. 운영난 가중: 공연 수익만으로 극장 운영 비용 감당 어려움.
3. 정책적 불균형: 서울시 문화지구 지정으로 건물주 혜택은 증가했으나 연극인 지원 부족.
4. 연극계 경쟁 심화: 소극장 증가(50개→140개), 대형극장의 진출로 관객 감소.
5. 대안 모색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연극 활동을 위해 단양 만종리로 이전.
 - 2015년 4월, 허성수 감독을 비롯한 대학로극장 단원 10여 명이 충북 단양 영춘면 만종리로 이주.
 - 귀농과 연극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극단 운영을 시도.
 - 연극과 농사를 병행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극단 운영 모델을 구축.



단양 만종리를 연극의 메카로 만든다!(1)

1. 자연을 무대로 한 환경연극 실험
→ 밭 뜨락, 산 중턱, 강변 등 기존 극장 공간에서 벗어난 공연 시도.
2. '주경야연' 실천
→ 낮에는 농사, 밤에는 연극 연습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3. 지역 주민과의 협업
→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비닐하우스 및 농지제공, 생활 공간 지원).
연극 참여 유도, 연극교육 제공, 농산물 재배 및 판매를 통한 공동체 형성.
4. 야외 극장 및 실내 극장 개설
→ 비닐하우스 무대, 마실 극장(한옥 창고 개조), 숲속 극장 등 다채로운 공연 공간 조성.
5. 문화소외지역 대상 공연 확대
→ '찾아가는 공연' 및 '모셔오는 공연'으로 충북 도내 농·산촌 마을 순회 공연 진행.



단양 만종리를 연극의 메카로 만든다!(2)

6. 농업과 연극의 결합

→ 감자, 옥수수, 마늘 등 농산물 재배 및 판매로 극단 운영비 마련.

7.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작극 제작

→ 온달과 평강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알퐁스 도데의 <별> 등을 자연속 무대에서 공연.

8. 공연 후 관객과의 교류 활성화

→ 공연 후 지역 농산물 활용한 식사 제공 및 뒷풀이 진행.

9. 자립형 운영 모델 구축

→ 공연 외에도 피자·순두부 판매, 호떡 판매, 농산물 가공 사업 등을 통해 극단의 경제적 자생력 확보.

10. 한국형 환경연극 정착

→ 리처드 쉘크너의 환경연극 개념을 반영해 자연과 연극이 결합된 독창적인 공연 스타일 발전.

11. 별방우체국을 소극장으로 개조





3. 극단 큰들과 산청 마당극마을





큰들 산청 마당극마을 준공식 & 잔치마당

2019. 10. 25.(금) 오후 3시~

順風に帆を力

산청

산청 마당극마을

큰들 산청 마당극마을

요자전

산청 마당극마을

鳥鶴橋マリン

산청 마당극마을

마당극마을

극단 큰들과 마당극마을 연극인들의 집단연극의 특징

1. 집단연극 마을(집단거주, 집단창작)

- 약 50명의 단원과 가족이 30채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
- 월급 지급, 자녀 교육, 의료비 등 기초 생활비를 공동 부담
- 집, 차량, 생활용품을 공유

2. 교육 및 생활 방식

- 공동육아 시스템 운영
- 초등학생들은 인근 2개 학교로 나누어 교육

3. 자체 생산 활동

- 쌀 농사, 닭 키우기, 커피 제조(위탁 및 퇴단 단원이 운영)
- 주요 수입원: 공연 수익, 후원회원 회비, 예술교육 사업(연기·사물놀이 교육), 지원사업 자체 수입 비중 82%, 후원회원 회비가 전체 수입의 30% 차지

4. 공동 의사결정

-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 개최
-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 감사와 칭찬, 응원 등 소통 진행

극단 큰들과 창원마당극마을을 만든 궁극적인 이유

1. 밥 먹고 연극만하자!

2. 단원들의 안정적인 삶과 창작 환경 조성

- 연습, 공연, 생활이 한곳에서 가능 → 출퇴근 부담 감소
- 생활비 절감 & 예술 활동과 삶의 균형 유지
- 도시의 소음 문제, 주거난, 경제적 부담 해소

3. 마당극공연 명소로 발전 시키자

- 마을 내 축제 및 다양한 공연 개최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공간 조성
- 예술가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창작의 장



1. 지역 맞춤형 이야기를 마당극화

- 각 지역의 역사, 인물, 신화, 전설, 문화를 조사해 공연 제작
- 예시: 효자전, 최참판댁 경사났네 (하동군 요청), 짚레꽃, 남명, 동의보감 (허준 일대기), 순풍에 돛달고, 마당극 목화, 마당극 정기룡 등

2. 어디서든 공연 가능

- 공연 장소에 제한이 없음 (야외, 강당, 극장 등 어디서든 가능)

3. 지루하지 않은 연출

- 공연이 10분 이상 지루하지 않도록 구성 (특히 야외 공연은 관객 이탈이 쉬워 흥미롭게 전개)

4. 전문적인 서비스 정신

- 단원들이 공연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 및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하게 여김

극단 큰들의 마당극 마을 조성 경위

1. 공동체 마을의 시작

- 산청 큰들 마당극마을은 국내에서 드문 예술가 공동체 마을
-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졸업 후 함께 살자"는 꿈을 공유

2. 극단 큰들의 기원

- 경상대학교 '탈반 동아리'(풍물·공연 활동)에서 시작
- 1984년 진주에서 문화운동단체 '물놀이패' 창단, 1985년 '놀이판 큰들'로 개칭

3. 마당극 중심 활동

- 창립 초기부터 마당극 공연이 핵심 활동(문화운동 → 지역콘텐츠 마당극화)
- 1990년대 중후반부터 공동체적 생활 방식 도입

4. 조직의 발전

- 1997년 '큰들문화예술센터'로 개명 : 마당극, 풍물 굿, 축제 기획, 강습, 영상, 회원 확대사업 등 종합 문화예술 단체로 성장

5. 공간 확장 및 기반 마련

- 2004년: 사천시 폐 냉동창고를 개조해 연습실 개관
- 2005년: 창원 큰들 창립
- 2007년: 본부를 진주에서 사천으로 이전하며 공동체 생활 본격화

6. 마당극마을 조성 과정

- 1998년: 집단연극을 위해 땅 매입과정에서 사기를 당함
- 2010년: 마당극마을 조성을 위해 2만 평 부지 구입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 2015년 국비·군비 18억 원 확보
- 2015년: 은행 담보대출 및 단원 가족들의 지원으로 부지와 도로 등 인프라 구축
- 2018년: 한국 건축문화대상·스틸하우스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한 아틀리에건설(주)이 책임시공자로 참여, 김현준 강원대 교수와 김태영 한국예종 건축과 교수가 책임설계자를 맡아 예술가 마을에 어울리는 공간을 조성
- 2019년 10월 25일: 산청 마당극마을 준공

7. 현재 마당극마을 모습

- 6만6천m² 규모 부지에 30채의 살림집, 연습·식사 공간, 목공 작업실 등 조성
- 현재 큰들 단원과 가족 50여 명이 함께 생활하며 공연과 일상을 공유

산청 마당극 마을 후원인의 수(2025.1월 기준)

1. 월 1만원 이상 정기 후원자(CMS(자동이체)) : **2,338명**
2. 공연이나 행사등 특별한 때에 일시불로 후원해 주신 분
 - 개인(부부포함) 125명(일본인 2명 포함)
 - 기업체 및 단체 87개 기관단체(일본 4단체 포함)
3. 기타 공연장 방문시 격려차 선물 및 후원금 납부
→ 이 모든것을 큰들 소식지를 통해 공개함



관객개발 성공사례



사례1, 희망크로스 합창단의 라면콘서트

(재)그린희망문화재단 부설 **희망크로스합창단의 라면콘서트**

- 2019 제2회 라면콘서트 경우, 1958만원의 수입(현금 825만원, 라면 358박스(40봉 기준))

희망크로스합창단
세종대 무용과 발레
탭댄스 [빌리 엘리엇 김세용]

라면 콘서트

Noodles Concert
라면처럼 맛있는 콘서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꽃다발 NO!
라면 O.K!**

라면을 가져오시면 누구든 입장이 가능하며, 모든 라면은 기부됩니다.

2019년 10월 24일(목) PM 7시 30분
원주 치악예술관

문 의 : 010-5360-3034 / 033-761-6002
주 최 : (재)그린희망문화재단 주 관 : 희망크로스합창단
후 원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 (주)삼양식품, (주)안마음에너지, (주)유진아이엠씨, (주)해지안





제2회 **희망크로스합창단 / 세종대 무용과 / 탭댄스**
라면콘서트



2019년 10월 24일(목) PM 7시 30분 원주 치악예술관

라면을 가져오시면 누구든 입장이 가능하며, 모든 라면은 기부됩니다.

문의 : 010-5360-3034 / 033-761-6002

주최 : 재)그린희망문화재단, 주관 : 희망크로스합창단

후원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주지구협의회), (주)유진아이엠씨, 한마음에너지

공연예술로

지역성장을 이끈 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



다카라즈카가극

(宝塚歌劇)이
들려주는
꿈과 사랑의
이야기



엘리자베스



베르사이유 장미



102기생 라인댄스

일본 뮤지컬 끝판왕 다카라즈카

화려함의 극치



다카라즈카시



일본(日本)효고현 (兵庫縣) 다카라즈카시(宝塚市)

[宝塚歌劇公式ホームページ \(hankyu.co.jp\)](http://hankyu.co.jp)



1-2. 다카라즈카 가극단(宝塚歌劇) 개요

- ✓ 고바야시 이치조(小林 一三)가 1913년에 창단한 소녀가극단
- ✓ 효고현 다카라즈카시(宝塚市)에 온천과 공연장 건립
- ✓ 1924년에 다카라즈카 전용 대극장을 건립
- ✓ 110년의 역사를 가진 여성전문 뮤지컬극단
- ✓ 1913년 7월 창단, 1914년 4월 1일 초연



다카라즈카 가극단

- 1914년 4월 온수 풀을 개조한 무대에서 가극 '돈브랑코(모모타로 이야기)'로 첫 공연

동원 관객 수 (2016년)

- 다카라즈카시 대극장
2550석, 460회 공연, 약 117만명

- 도쿄 대극장
2069석, 476회 공연, 약 97만명

객석 가동률(입석 제외) :
100%

- 전국 총 합계
(전국 투어 등) 약 273만명

주요 공연

- 베르사이유의 장미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

① 중앙일보

[宝塚歌劇公式ホームページ \(hankyu.co.jp\)](http://hankyu.co.jp)

- 봉건주의적 관습의 일본의 문화
- 아름답게 피고 아름답게 진다! → '야마토타마시(大和魂:일본 정신)' 관념 - 사쿠라(벚꽃)미학, 게이샤의 관능이나 사무라이 정신을 환기하는 매개물
- 스폰서(후원)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는 사회구조와 신뢰 사회
- 일본 특유의 흥행 문화와 구조- 吉本興業, 東寶, 東映
- 노(能樂), 가부끼(歌舞伎)로 대변 되는 남성 중심의 예능 문화에 대한 반향



다자와코 호수와 다츠고상

시골 논 한가운데 극장을 짓다!



1972年 劇場起工式

劇場은 人生의 친구



극단 와라비좌와 아키타 예술촌



これからが本史

わらび劇場が完成した翌年、1975年に春夏秋冬の「わらびまつり」が始まった。長年わらび劇場建設を応援して下さったみなさんが全国から駆けつけ、出来上がったばかりの「我が劇場」での舞台を楽しみ、わらび座の本拠地は一気に数百名が集う交流の場となった。このため、650名収容の5階建て宿泊施設を建設。それが今の温泉ゆぼほホテル棟である。

1976年以降、中学生・高校生の「わらび座修学旅行」が急増する。70年代後半から80年代前半、校内暴力が社会問題となった時期。「生きる力を創る修学旅行」「人間と出会う旅」として、わらび座での感動体験は注目され、それが今日へと続いている。(P10~11参照)

1981年、わらび座創立30周年。わらび劇場で行われた記念講演で原太郎は30年の歩みを「前史」と表現し、「わらび座はこれからが本史」と語った。



劇場は 人生の友

1975-1996

くらわらび劇場完成から、
たさわご芸術村誕生まで

創立30周年記念パーティー(場所は現在の温泉ゆぼほホテル棟前)
右上に見える建物が、現在の「わらび劇場」



一九五三年、秋田定着の年
学校公演を終えて記念撮影

1. 전후(戰後) 일본 연극 부흥의 선구자

- 태평양전쟁 이후 황폐해진 일본에서 예술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
- 도쿄에서 시작한 소규모 극단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민중 중심의 연극을 창작.
- 일본 민속예술과 연극을 융합한 독창적인 공연문화를 확립.

2. 예술과 지역 발전의 성공적 결합

- 단순한 극단 운영을 넘어 **온천, 숙박, 전통 음식, 맥주**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관광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지역 재생 모델로 발전.
- 연극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3. 전통문화 보존 및 현대화

- 일본 민요, 전통 무용, 민속예술을 연극과 뮤지컬 형식으로 재해석.
- 민족문화예술연구소를 통해 전국의 전통예술을 수집, 보존, 연구.
- 디지털 아트 팩토리(**DAF**) 운영 → 전통예술을 디지털화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4. 전국적인 문화교육 플랫폼 구축

-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 → 전국에서 학생들이 방문하여 연극·민속 체험.
- **4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방문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
- 연극을 통한 교육과 공동체 문화 형성.

5. 민간이 주도한 예술 경영의 성공 사례

- 정부 지원 없이 민간 기부와 자체적인 수익 모델로 극장 및 예술촌 운영.
- ‘의자 기금’과 같은 창의적인 펀딩 방식으로 자금 확보.
- 1971년 주식회사 설립, 이후 숙박, 요식업 등 다각적인 사업 확장.

6. 코로나19 이후 재건과 지속 가능성

-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영 위기를 겪었으나,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 재정비.
- 전국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2022년 흑자 전환 성공.
- 비영리 조직으로 변모하여 예술의 공공성 강화.

극단 와라비좌와 다자와코예술촌의 성공지표

항목	수치 및 지표	설명
창립 연도	1951년	전후 일본에서 예술을 통한 재건을 목표로 창단
공연 횟수	연간 1,200회 이상	전국 순회공연 및 상설 공연 포함
연극 관람객 수	연간 25만 명 이상	전국 및 지역에서 방문
수학여행 참가자	누적 40만 명 이상	1970년대부터 전국 학생 대상 체험형 수학여행 운영
연 매출 (최고치, 2011년)	20억 엔	극단 사계(30억 엔)에 버금가는 규모
코로나19 전 방문객 (2019년)	150개교, 1만 5천 명	연극·민속예술 교육을 위한 방문
극장 좌석 수	750석(와라비 극장)	대형 무대 연출이 가능한 구조
예술촌 방문객 증가율	1992년 온천 개장 후 3만 명 → 13만 명	관광과 문화의 융합 효과
극단 운영 직원 수	240명(2018년) → 170명(2021년)	예술·관광 복합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재건 후 흑자 전환 (2022년)	2억 1,786만 엔	코로나19 극복 후 일반사단법인 전환 성공

극단 와라비좌와 다자와코예술촌의 성공지표

항목	수치 및 지표	세부 내용
창립연도	1951년(바다제비)	전후 일본에서 예술을 통한 재건을 목표로 창단
공연횟수	연간 1,200회 이상	전국 순회공연 및 상설 공연 포함
관람객 수	연간 25만 명 이상	전국 및 지역에서 방문
수학여행	누적 40만 명 이상	1970년대부터 전국 학생 대상 체험형수학여행 운영
연 매출 (최고치, 2011년)	20억 엔	극단 사계(30억 엔)에 버금가는 규모
코로나19 전 방문객(2019년)	150개교, 1만 5천 명	연극·민속예술 교육을 위한 방문
극장 좌석 수	750석 (와라비 극장)	대형 무대 연출이 가능한 구조
예술촌 방문 객 증가율	13만 명	1992년 온천 개장 후 3만 명 → 13만 명 관광과 문화의 융합 효과
극단 운영 직원 수	240명(2018년) → 170명(2021년)	예술·관광 복합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재건 후 흑자 전환(2022년)	2억 1,786만 엔	코로나19 극복 후 일반사단법인 전환 성공

관객의 입장에서 본 와라비좌와 다자와코예술촌의 매력

1.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공연

- 일본 민속예술과 뮤지컬을 결합한 차별화된 공연 콘텐츠 제공.
- 전통 민요, 무용, 현대적인 연출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무대 경험.

2.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 복합 체험 공간

- 연극 관람뿐만 아니라 온천, 지역 맥주, 전통 요리, 숙박 등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
- 공연을 본 후 온천을 즐기며 힐링하는 특별한 문화 여행 가능.

3. 체험형 프로그램과 교육적 가치

- 학생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연극·민속예술 체험 기회.
- 수학여행, 연극 워크숍, 농촌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풍부.

4. 재방문을 유도하는 특별한 팬 문화

- ‘의자 기금’ 등 관객과 극장이 연결되는 팬 중심 운영 방식.
- 단순한 관광이 아닌, 극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문화적 경험.

5. 자연 속에서 만나는 예술과 휴식

- 다자와코 호수, 아키타의 자연경관과 함께 즐기는 예술 여행.
- 한적한 시골에서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

지자체의 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사진출처 : 여행맛객 블로그

()다운 문화예술 창조의 3가지 원칙

① 감상형 문화예술 활동 증진 사업 / 대상 = 「시민」(관객)

- 매력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하는 것은 공연예술을 감상하는 시민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축제 공간으로서 상업적인것이나 오락적인 것, 그리고 타 산업과도 폭넓게 제휴하며, 폭 넓은 흡인력을 가진 지자체의 얼굴로서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공헌하는 것.

②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증진 사업/대상=「시민」+「공연 예술 관계자」

- 공연예술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포함해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즐기는 **참여형 활동에 대해서 지원**.
- 문화예술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의 활동으로서 예술교육 활동(학교, 청소년, 주부, 노인) 및 복지 분야에서의 사회공헌.
-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향유층을 장기적 시점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객 모으기를 도모**.

()다운 문화예술 창조의 3가지 원칙

- ③ **창조형 문화예술 활동 증진 사업 / 대상 = 「공연예술 관계자」**
- 공공재인 지자체의 문화예술 시설(아트센터 등)은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과 활동의 장소로 제공되어야 함.
 - 또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그 지자체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문화예술의 특성화」를 만들어야 함.
- 즉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동시에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1.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한 실시간 세계와 소통시대의 적응

- 스트리밍 플랫폼(NETFLIX, DISNEY, WAVE, APPLE, SEEZN, TVING, WATCHA, COUPANG PLAY)이 매우 활성화 되어있어 전세계와 초연결 사회속에서 살고 있음
- SNS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 썸네일도 만들고 Official Trailer(공식 예고편)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야함
- 아무리 SNS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가슴이 뛰는 감동을 느끼게 하는 공연장으로, 전시장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예술인들의 몫**인 것이다.

2. 내 주변 부터 관객으로 만들자!

- 자발적 관객개발은 예술단체의 지속적 생명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
- 더불어 자체의 예술적 기량 향상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예술교육 등 장기적인 수단도 필요
- 공연예술은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야 하는 예술로서 같은 시공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관객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시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에는 경제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는 크다 『문화복지시대』**
- **이제는 예술 활동도 산업 즉 생산 활동의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 **예술문화의 적극적인 활동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 거창국제연극제
- **춘천시**는 2019년 8월 '영화특별시'로 도약을 위한 '영상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봄내 종합촬영소(대표 문루도)의 경우 2022년 전체 춘천 촬영 작품은 30작품 정도가 준비돼 있고 글로벌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작품이 5작품 정도라고 하며 건설기계인 중장비를 비롯해 보조출연 인력의 소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따라서 인제군은 생활예술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문예술 단체 및 예술인을 유치하고 전폭적인 지원 해야 함을 강조한다.** (끝)



감사합니다!

